

주간에 News InChrist



주 . 안 . 에 . 교 . 회 . 뉴 . 스 . 레 . 터 .



07
Jul. 2021
Vol.9 No.07

- 창립 8주년을 맞이하며
- 노회원로목사 주안에만찬
- 청년부 / EM 소식
- 목장 / 새가족 소개
- 간증 / 기고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전교인의 놀이 한마당인 주안에 놀러와에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등장한 통돼지구이... 잔치의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고 있다. <양영 기자>

섬김 · 기쁨 · 열기 '주안에 큰잔치'



■ 제3회 주안에 놀러와

오랫동안을 팬데믹 상황에서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경건한 예배를 올려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며 지내야 했다.

성전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귀한 시간들과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를 의례히 쉽게 주어진 일상으로만 여기고 깊이 감사하지 못했음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발걸음 하나까지도 새삼스러운 의미가 부여되어졌다.

그동안 Covid19로 인한 통제 속에 격리되어 있어야 했던 성도들이 주안에 놀러와의 타이틀로 운동회가 시작되었다.

기쁨으로 은혜 안에서 예배드린 후 배구, 농구, 탁구, 발야구, 배드민턴, 줄다리기까지 그리고 어린이들의 세발자전거 경주, 방석 뒤집기 등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까지 3대가 모두 하나되어 마음껏 목청높여 응원하며 2년만에 자유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22가지의 음식과 음료, 그리고 다과와 떡볶이, 솜사탕에 붕어빵까지....

<4면에 계속 · 특집 4~6면> | 김선희 권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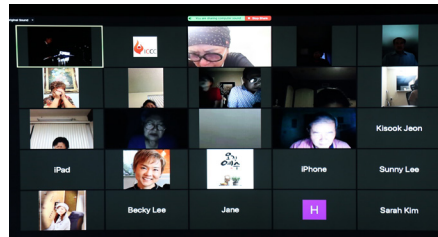
■ 새벽기도

성전에서 집에서 기도의 파숫꾼들 새벽을 깨운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벨리채플 파킵으로 속속 들어오는 차량들... 오늘도 잠자리에 더 머물기를 바라는 '육체의 요구'를 거부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의 파숫꾼들이 불을 켜지 않아도 익숙한 예배당 안 각자의 기도 자리를 찾아가 앉는다. 강단 양쪽 2개의 대형 모니터에도 원거리에 사는 성도님들 얼굴이 하나씩 떠 오른다.

한마음으로 주안예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부르짖는다. 매일 크게 바뀌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마음의 간절함은 더해 간다. 먼저 주일예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요동하고 두려워하는 조급한 옛 본성에서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기다리는 성실함을 구



한다. 나의 정위치가 언제나 하나님 임재 앞이 되기를 소원한다.

담임목사님의 인도로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 '성도들이 성전 예배에 모두 돌아오기를' '교회 직분을 받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도록' '말씀 훈련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어 성도들의 삶에 열매 맺기를' '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해야 할 영커들과 EM, 코람

데오 청년들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의 삶을 살도록' 'BP채플 새 예배장소와 벨리채플 교육관 건축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기를' '선교사들과 교회 사역자들에게 성령님 동역해 주시기를' 통성으로 간구한다.

공동기도를 마친 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중보기도로 이어진다. "교회 창립 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가 계속 몰려 왔을 때보다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어려움이 없는 지금이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영적 안일함, 영적 게으름에 빠져들면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만 할 위기의 때입니다" 담임목사님의 호소가 무겁고 절박하다. 함께 기도합시다!

| 조용대 기자 |

■ 교우동정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 이승태 집사 · 함승민 집사 생일

7월 3일 토요일 아침, "주안에놀러와" 행사 준비가 한창 바쁘던 중에 친교관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미디어국과 새가족국에서 봉사하는 이승태, 현숙 집사님 부부(왼쪽) 와 EM과 영커플에서 섬기고 있는 함승민, 고한선 집사님 부부(오른쪽) 가 함께 생일을 맞아 주위에서 깜짝 이벤트를 한 것이다.

| 임용자 기자 |



■ 박찬웅 · 김혜연 성도 결혼

그동안 청년부와 EM 에서 리더로 열심히 섬겨온 김혜연 자매가 믿음의 배우자인 박찬웅 형제를 만나 7월 3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담임 목사님과 아가페 영커플의 목자들, 그리고 몇 영커플 가정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귀한 가정에 늘 웃음이 넘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 노회원로목사 초대 주안에 만찬

평생 하나님 사역 충성 ‘목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주안에교회가 소속되어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서부 아메리카 노회의 원로 목사님들을 모셔서 식사대접과 함께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해 드린 주안에 만찬 행사가 지난 7월 20일 벨리채플 친교관에서 있었다.

12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3분의 사모님들이 참석하셔서 그간의 안부를 물으시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후에, 정성껏 차린 점심 식사를 하실때는 점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갔다.

식사 후 주안에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된 성악가들의 특송 순서가 이어질 때는 작은 음악회라도 참석하신 양 감미로운 표정으로 감상 하시더니 결국은 넘치는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시고 답가로 찬송을 부르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도 계셨다.

사회를 맡으셨던 권대근 목사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목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꼭 부모를 공경 하듯이 정성을 다해 주셨음에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렇게 귀한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신 최혁



목사님과 또 주안에교회와 함께 동시대에 남기신채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자리를 뜨 사역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썼다. <관계기사: 9면> | 오희경 기자 |

■ 데본셔경찰서에 커뮤니티 후원금 전달



‘주안에교회 후원 감사합니다’

“주안에교회에서 커뮤니티 치안과 지원 활동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구자형 권사님을 통해 커뮤니티 후원금을 전달 받은 LAPD 데본셔경찰서 캐슬린 번스 서장(오른쪽 2번째)은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벨리채플이 위치한 샌퍼낸도 벨리 북서부 지역을 관장하는 데본셔 경찰서는 평소에도 주안에교회와 좋은 유대를 맺고 있으며 주안에놀러와 행사에 경관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 새가족 / 박덕수 · 박은주 집사

믿음의 씨앗 움트는 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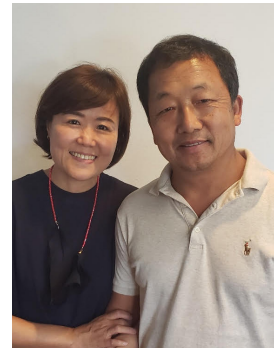
작년 6월부터 팬데믹 1년 동안 아내가 몸도 맘도 지치고 힘들었던 정말 어려운 시기를 언니인 김현숙 권사님의 기도와 보살핌으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형님집에서 주안에교회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며 웃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일상 생활에 지쳐있던 아내에겐 팬데믹 기간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교회다닐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활기찬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교회가 건강해 보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 그동안 잠자고 있던 믿음의 씨앗들이 자극받기 시작해 서서히 움을 틔우려 한다는 점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상금도 메달도 없는데 땀별 아래 뜨거운 승부

The ICCC sports day was such a blessing! We were able to come together as one people and worship our Lord. We had a tremendous time of fellowship, fun, and a chance for service. I was blessed to have an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with hundreds of other followers of Christ as we prepared for the events. Working, living, and playing together as one family is so very beneficial to our Christian walk. We have seen through the Covid-19 experience that isolation causes depression and numerous other issues. Praise God we can come together and experience the Body of Christ! Fellowship with other believers was missing from 2020. Thank the Lord we can come together to worship and thank each believer who joined in the festivities. - Ernie Baker

Starting the day in worship and ending the day in worship...was a true Lord's day - dedicated to Him, united with the body of Christ! - Laura Park

Sports day brought a lot of warmth to my heart, very comforting with all the joy and love that was felt throughout the day. It was also very refreshing to my soul as it brought upon renewed hope and much excitement for the future blessings that God has planned for us. - Joshua Kim



〈1면서 계속〉 마음껏 먹고 마시며 풍요로움과 행복을 누리는 오래 기억 하고픈 큰 축제의 향연 이였다. 해가지면서 보름달까지 떠오르는 저녁시간 분수대 주위에 앉아 온성도가 함께 찬양하며 은혜로운 마무리 시간을 갖은후 미국 독립기념 불꽃놀이까지 함께 즐

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밤을 보내는 환희의 시간이 되어갔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풍성한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BP 성도, 밸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되며 복되고 행복한 하루였음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등에 땀이 흠뻑 젖어가며

불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굵고 튀기고 볶으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갖을 여유조차 잊은채 맛있게 먹고 싶은 어머니의 품속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바쁘게 움직이시던 봉사자들의 손길은 주님께서 따로 정산하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돼지 잡고 파전 부치고 풍성한 먹거리 장터



윤선옥 집사 이 교회로 옮겨서 처음 겪어 보는 큰 행사. 게다가 팬데믹으로 움츠러 있다가 맞는 큰 야외행사에 들뜬 마음으로 와보니 먹거리가 예상외로 너무 많이 준비되어 일단 놀랐어요. 그 더운 땀병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보며 마음이 몽글했답니다. 사실 섬기는 본인들이 더 큰 은혜를 받기 마련 인지라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뿌듯한 추억으로 남았을 줄 믿습니다. 섬김을 받는 저로서도 이렇게까지 해주신아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왁자지껄 하나되는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 드립니다.

아름다운 섬김/ 무명 주안에교회에 와서 처음 맞는 ‘주안에놀러와’를 기도로 준비하며 기대하고 있었다. 행사 전날인 7월3일 토요일 준비를 위해 빨리채플에 도착해보니 벌써 많은 성도님들이 와 있었고 교회 주방에는 음식준비에 바쁜 모습들이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셔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한참 서 있는데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왜 밖에 계시느냐면서 파전 준비를 함께 하자고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 가셨다.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복잡한 가운데서도 질서를 잘 지키고 리더의 말에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당초 걱정과는 달리 은혜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일을 마칠 수 있었다.

드디어 주안에놀러와 행사가 열리는 당일, 전날보다 더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다.

매주 귀한 말씀을 들으며 삶에 적용시키는 성도들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함께 같은 교회를 섬겼던 그가 주안에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흐르며 매일 삶이 변화 되어져 가는 것을 느낀다. 특히 도전 받는 것은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바라보며 저도 나이 들어 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실제로 그 장로님들의 봉사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어떤 분들은 부서마다 찾아다니시며 챙기시고, 어떤 분들은 마치 청년처럼 소리를 지르며 경기를 이끄시면서도 나이 어린 진행자들의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요는 주방에서 파전만 붙이다보니 다른 파트에서 장만한 다양한 음식들을 맛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부엌에서 봉사하신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였다. 다음 행사 때엔 ‘봉사자들을 섬기는 봉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맛난 것도 먹여 주고, 땀도 닦아주는... 벌써 다음 주안에놀러와 행사가 기다려진다.

양승우 집사 2018년 교회에 등록 후 처음으로 참석함과 동시에 총무를 맡게되어 걱정과 기대와 함께 시작한 이번 주안에 놀러와는 저에게는 꽤나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인들을 제가 아는것도 아니었고,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더 친교의 자리가 제한된 상황이라서 제가 행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도 했었습니다. 저와 함께 황팀 총무직을 맡으신 양요석 총무님이 없었다면 군대에서 이병처럼 어리버리 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리도 했었구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교회와 저를 비롯한 모든 교인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열심히 봉사하고 준비하며 진행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모든 봉사자들과 교인들, 참석하지 못했던 교인들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안에교회가 저는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잔치는 끝나고 별빛 아래 찬양이 향기처럼...



이방길 장로 더운 날씨에 준비하느라 힘드셨을텐데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무거운 짐 옮기며 청소하고 마무리해 주신 분들, 아름답게 꾸미고 부엌에서 하루 종일 수고해 주신 권사님들과 진행위원, 총무단, 각 부서장님들과 장로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하게 지키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영희 권사 우리가 팬데믹으로 서로 만날 수 없었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언제 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 흐름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우리를 한번도 실망시키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일하시고 계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언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참 의미있는 시간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서로 섬길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5주 동안 함께했던 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참,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모두들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 July EM Seminar Series "Scripture Lens: Rhema"

Logos Becoming Rhema Through Encounter

The Scripture Lens: Rhema series this July was about slowing down from the fast pace of life through a spiritual discipline called Spiritual Reading. The Bible becomes a "place" of encountering God who spoke us into being and who continues to speak to us to shape us in the image of Christ. Scriptures no longer come across as just the written word but become God's utterances to us in all circumstances when we come to "meet" God. Logos becomes Rhema as we take in, taste, and savor the God-breathed words. The child of God prepares to encounter God with inner shift: from control to receptivity, information to formation (being formed to be Christ-like) and observation to obedience. The child reads to taste and savor the flavors of God's Word. The child chews and pro-

cesses mouthfuls of words, phrases, and passages often pondering, reflecting and even imagining himself or herself in the stories God tells. God through the Holy Spirit leads the child to respond from the heart with openness and honesty as if entering into a personal dialogue about the love, joy, sorrow, anger, repentance, desire, need, conviction, consecration or any other that God's words arouse in real time. The child then yields and waits upon God, resting content and embraced by the Father's love. Finally, the words ingested (rhema) "incarnate" as the words of the text are lived out in the life of the child of God. The Father nurtures the sensing, thinking, feeling, and intuitive sides of the child's temperament as He continues to lead the child along the movements of their dance at every encounter.

| Monica Kim |

It's hard to put into words the wisdom/experience I gained from attending the Scripture Lens Seminar. With so much that I learned and the way that it flowed from beginning to end, it was almost as if I was being taught how to properly surf along the waves of God's Word or how to beautifully dance with the Holy Spirit. It really brought to my attention how "important to detail" the Word really is, how enjoyable it can be when I get myself immersed within the stories that it holds and the emotions that it brings.



| Joshua Kim |

양채플 회원들 오랫동안 화기애애... 진지한 소통의 기회

■ 코람데오 아우팅

은혜가 넘치는 1부 예배 후에, 빨리 청년과 BP청년들이 글렌데일 지역 볼링장에 모였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즐겨 모여 하던 오랜만의 볼링 모임이라 기대감도 있었고, 오랜만의 친목 모임 이기도 해서 반가운 얼굴도 있었으리라. 몇몇 인원은 그간 사용치 못해 먼지가 쌓였던 볼링 신발이 든 박스를 옆구리에 끼고 상대방의 평균점수를 파악하기 바쁘고, 일부는 고득점 달성을 기대하는 표정과 함께, 또 다른 일부는 숨죽인 고수의 분위기를 뽐으며 지정된 볼링 라인으로 입장하였다.

빠른 진행을 위해 무작위 선수 뽑기로 두 팀이 정해졌고, 게임의 양상은 원래 잘 치던 사람은 변함없이 잘 쳤고, 박빙의 경쟁구도도 있었으며, 처음 친 사람의 기대이상 활약으로 게임하는 내내 화기애애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맛있는 볼링장 내의 음식으로 고픈 배도 채우며, 그간 떨지 못한 수다와 함께 어느새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어 게임은 마무리 되었고, 모임의 아쉬움은 근처 갤러리아 몰 음료모임으로 이어졌다. 그곳에서도 음료 하나로 깔깔대며 많이 웃기도 했고, 자매님들의 생식 요법에 대한 주제로 건강을 챙기며 좋은 정보와 내용들로 수다를 떨며 아쉬운 오후의 시간도 흘러만 갔다. 오랜만이었지만 여전히, 여전히지만 반가웠고, 반가웠기에 다음 모임도 기대가 되는 것 같다.

하루빨리 예배의 부흥과 함께 더 많은 청년들의 활동이 이어져서 든든하고 탄탄한 교회의 허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며 글을 마무리 해본다.

■ 리더모임

타주에서 친구가 방문하여 먹방투어로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낸 중에 오승현 목사님 댁에서 모이는 리더 모임 겸 초대 자리를 그새 홀라당 잊어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KM청년부 대표 간사의 한통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지각의 부담을 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속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문을 열자마자 꽤 한가득 들어오는 구수한 샤부샤부 향을 맡으며 지각의 부끄러움과 함께 착석을 하였다. 배부른 상태에서 보이는 상 한가득 고기들과 야채, 해산물 재료들은 그림의 떡으로 남을 뻔했지만, 실란트로와 함께 뜨거운 새우도 호호 불어가며 더욱 야무지게 잘 먹었다.

식사 후, 코람데오 회의는 시작되었다. 준비된 많은 주제들에 대해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행동을 서로 응원하였고,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위해 새로운 시도와 훈련을 권면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었다. 새로운 많은 영혼을 위한 <한보 전진>의 시간이었기 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한 <돌아보기> 하는 돌봄과 준비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마지막으로, 모임 중에 나온 말로 끝을 맺어 본다. '세상을 향한 시선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와 변명이 아닌..... 힘써 기도하자.' | 안세진 성도 |



■ 한국에서 온 편지

‘믿기지 않는 선물, 주안예교회 감사합니다’

〈편집자주- 어려운 형편에 홀로 두 남매를 키우는 한국에 있는 성도 가정을 위해 최근 주안예교회에서 나눔의 손길을 건넸다. 다음은 도움을 받은 성도가 보내온 감사의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18년째 홀로 두 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 가정의 가장이자 엄마인 김혜연입니다.

둘째 아이가 백일도 되기 전 뜻하지 않게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라는 자리가 처음이니 책임감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들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거부하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겨우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었다면 그 긴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만 쳐다보고 의지하는 아이들 눈망울을 보며 저는 무슨 일이든 닦치는대로 했습니다. 위자료는 커녕 양육비도 못받는 저와 아이들이 살아야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것들을 맡길 곳이 없어 일하던 곳 차디찬 바닥에 박스를 깔아 재워 가면서 밤낮 없이 일을 했지만 그마저도 아이들 아빠가 이혼을 조건으로 남겨 준 빚을 갚는 데 써야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더 저리고 아프게 합니다.

여러가지 스트레스와 합병증으로 저는 치아가 다 빠졌고, 아이들 역시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본인들의 존재가 버려졌다는 충격으로 긴 시간 심리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우연히 지인으로 부터 교회도 인도함을 받았고 저 또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어려워하고 대인관계가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어느새 심리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만큼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제게는 참으로 감사한 곳입니다. 아이들이 커가고 2평짜리 작은 방에서 지내기가 버겁게 될 무렵 정

부에서 지원해 준 지금의 보금자리로 옮기게 되면서부터 저는 교회나가는 것이 더 힘들어졌고 결국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타지역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교회를 계속 나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에게 교회는 감사한 존재일 것이고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격도 밝아지고 자기들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학원 한번 보내지 못했지만 공부도 곧잘하고 모두 국악을 배우며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 명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개인 악기를 가지고 연습하고 레슨비가 없어 영상으로 선생님들에게 배워 그토록 원하던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둘째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치아부정교합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다보니 근래 다시 우울증이 나타나 경희대 치과병원을 방문했지만 너무 큰 비용이 부담스러워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 치료비의 3분의 2를 지원 받는 대상에 선정되었지만 매일 투잡을 뛰면서도 아이들 교육비와 아직도 남아 있는 빚을 갚아야하는 저로서는 본인부담 치료비를 감당할 형편이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주안예교회에서 우리 가정에 도움을 주셔서 어떻게 감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치료시기를 놓치면 상, 하악이 더 벌어져 입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라 되도록 속히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주안예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6월 23일 첫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도 8년만에 다시 가까운 교회로 나가 하나님의 품안에서 마음의 안정 얻고 있습니다.

주안예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께 받은 감사를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나의 분깃, 주인되신 주님

안녕하세요, 세네갈 김승주 선교사입니다. 꿈만 꾸지 않고 뜻을 달고 ‘사도행전 29장’을 이어나가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순종의 첫 걸음이 두려웠지만 “깊은데로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외치며 이 땅을 밟은지 어언 10년이 되어갑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미 지나온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신 흔적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서 두드러고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늘 갈급해 왔습니다.

세상의 떡을 쫓아 어떻게든 남보다 더 좋은 학력과 더 나은 자리,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 치달아가던 제 전반부의 인생을 제자로서의 삶의 이유와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진의 걸음을, 상상 속에만 있었던 서부 아프리카 끝에 있는 황량하고 메마른 땅 세네갈로 이끄셨습니다.

세네갈은 아프리카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항공교통이 편리하고 주변5개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으며 수도 다카르는 교통, 교육,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서 이 나라뿐 아니라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지가 되어 아프리카 각국에서 온 인종들과 유럽, 중국의 일꾼들이 북적되는 활기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선교사의 입국과 선교활동에 표면상으로는 제한을 받지 않아 세계적인 선교기관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그들 식민지의 시범나라로 개발한 나라이기에 아프리카의 파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진 수니파 이슬람 지도자들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 하는 관계로 기독교 전파의 두꺼운 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절을 남긴다는 것, 물론 사역의 결과와 성과를 의미하는 것임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분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충성의 기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고통 중에도 주인을 묵상하며, 아무리 아픔이 있든 주님이 당한 고통만 하겠는가.... 때문에 사역의 결과보다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충성심으로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기를 다짐합니다.

〈세네갈에서 김승주 선교사〉

■ 노회원로목사 '주안에만찬' 을 다녀와서...



진심이 담긴 섬김에 진한 감동이

지난 7월 20일 정오에 필자가 소속한 노회 원들이 댈리에 위치한 노회 소속 교회의 초청으로 위로 잔치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들어 하는 때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부터 받는 위로이기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초청으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십 명의 목사님들에게 정성된 최고의 음식과 여러 종류의 선물만 아니라 아름다운 봉투에 정성으로 써내려간 담임목사님의 인사의 글과 함께 큰돈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민교회를 40여년 섬겨오면서 처음 경험한 일입니다.

나도 다른 목사님에게 그런 큰 사랑을 베풀지 못했지만 다른 목사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사는 동안 늘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뜻밖의 위로와 기쁨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이 같은 행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 감동이 되는 것은 행사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행사 당일에는 당회원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정성으로 뜨겁게 섬겨 주셨습니다.

형식적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전달이 되는 깊은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시는 C 목사님이 우리 중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이런 특별한 행사를 연이어 매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섬김에 대하여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C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라고 특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교회들이 팬데믹으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어려움에 고통당하시는 목사님들을 위로하시는 것은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분에 넘치는 감동과 사랑을 선물하시는 C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배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C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위에 하늘에서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과, 빛나는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이상기 목사/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 발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

2021년 7월 20일은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글 거리는 태양은, 아침의 서늘함을, 뜨겁게 만든 전형적인,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일 아침 주안에 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원로목사님의 초청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그리고 늦지 않게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길도 대체로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11시 40분쯤에 교회에 도착했을 때, 장로님들이 나와 계시며, 차량 안내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모습으로 맞이 하는지, 내가 꼭 무엇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장로님들과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아주 반갑고 친절하게 다시한 맞이 주시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열을 체크하고 자리를 배정받아, 행사장에 들어섰을때, 정말 많이 준비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큰 체육관을 온통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 놓았고, 리본을 달고 써브하는 장로님 목사님들 특히 담임이신 최혁 목사님은 빨간 리본의 타이틀 메시고, 써브를 하시는데,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큰 키에 반소매 옷은 좀 작아 보이는 듯 했는데, 너무 해피하시고 또한 모든 장로님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스태프와 성도님들...일사 분란하게 섬기시는 것을 보고, 주안에 교회가 참 부러웠습니다.

1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신 이상기 목사님께서 주안에 교회를 무척 축복하시는 간절함이 깃들여 있음을 보며, 참 축복하시고 싶어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2부 만찬시간이 되어 당회원과 목사님의 식사 써브를 하실 때, 참석한 목사님들의 덕담을 하나씩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모두 돌아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안에 교회 칭찬이 일색이었으며, 모두 큰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는 말씀들을 하였습니다.

사회자인 저도, 원로들을 대접하시는 것이 부모공경하는 것 같아, 출20:12절과 신5:16절 말씀을 근거해서, 에베소 교회에 (엡6:13) 전한, 바울의 부모공경을 설명할 때, 부모공경은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안에 교회가 잘되고, 장수 할 것이다 하는 축복을 하였는데, 좀더 더 크게 축복 하고 싶은 마음을 못내 다 하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안타깝기 까지 했습니다.

최혁 목사님과 그리고 주안에교회와 함께 동시대, 사역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 이상의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전달 되었으며, 그러한 축복이 주안에교회와 당회 그리고 목사님에게 임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1년 7월 22일, 나성샘물 교회를 섬기는 목사 권대근 올림.

■ 주안에말씀 17기 개강

팬데믹 속 성경통독 열기 30여명 '18주 대장정'

성경통독과정인 주안에말씀 17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 저녁반(7/6~11/2)은 매주 화요일 저녁 7:30분에 그리고 목요일 오전반(7/8~11/4)은 매주 목요일 10시에 함께 ZOOM으로 모여 말씀을 통독하게 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함께 모여 말씀을 통독하지 못하고 Zoom으로 모여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 열기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뜨겁고 진지합니다.

지난 7월 6일(화요일) 저녁 7시 30분, 화요일 저녁반에는 29명의 성도님들이 모여, 평사원(평신도사역원) 이정미 전도사의 성경통독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인도자이신 김경배 장로의 인도로 약 2시간동안 창세기 1장부터 20장까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읽기 표를 따라 매일 10장 정도씩 읽게 됩니다.

앞으로 18주동안 매주 한번씩 모여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매일 각자 가정에서 10장정도를 읽게 되면, 참가하신 성도님들은 18주후에 모두 성경을 1독 하시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주안에 성도님들 중에는 2번째 3번째 통독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참

여하고 계셨습니다.

평사원 필수 과정인 주안에말씀 과정에 모두 참여하셔서 송이 꿀보다 달고 능력 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 이광영 기자 |

■ 주안에씨앗 이수 소감문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준 말씀 훈련

주안에씨앗 훈련은 그래도 신앙 생활한 지 나름 오래된 저는 스킵해야 하는 훈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zoom이라는 매체를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또 이 단계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역시 말씀 훈련은 하면 할수록 제 삶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이현숙 집사

지난 5주 동안 배웠던 말씀들이 내 마음 밭에 씨앗으로 잘 심겨져서 그 씨앗이 말씀과 기도라는 충분한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시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많이 들었고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오히려 어설프게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 걸림돌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배움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구원의 선물을 오직 은혜로 거저 받았음에, 그 주인공이 '나'임에 다시금 감사하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제가 자랑스러워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여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함을 배웠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보여주셨던 'redwood'라는 나무를 보면서 뿌리가 깊지 않음에도 그렇게 오랜 세월 모진 풍파에도 꺾이지 않게 설 수 있었던 힘은, 나무들이 서로 연결되어 지탱해주고 버텨주었음에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연합과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보완해 가면서 이 땅의 어떤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에도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단단히'

주안에씨앗을 하면서 매일 같이 다짐을 하지만, 한 순간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 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적부터 교회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구원의 확신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으로 세세하게 정리해 주시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제형 집사

구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시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많고 힘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교통, 그리고 영의 호흡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기도하는 것 또한 믿음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져 교회는 주님의 머리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출석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를 한다고 했지만, 중심에는 진정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닌 나 중심의 봉사를 했음을 이번 훈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고치고 믿음생활을 올바르게 주님과 걸어가기 원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 안에 씨앗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말씀의 열매로 뿌리내리도록

신청: 4/25 ~ 5/9 | 교회 웹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훈련: 5/13 ~ 6/10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밸리성도들에게 베푼 사랑의 식탁 잊을 수 없어요”



■ BP채플 권사 감사회

1년 이상의 어두웠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대면예배가 시작하게 되면서 오랜만에 만나는 교인들의 친교와 함께 점심식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픈 귀한 사랑의 섬김이 6월 한달동안 매주마다 밸리채플에서 이어졌다.

부애나팍 채플의 권사님들은 먼거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직접 밸리채플까지 올라오셔서 능숙한 솜씨로 맛깔스러운 음식을 해내시고, 그 음식을 대접받는 밸리의 성도님들은 거의 잔치에 가까운 메뉴를 접하면서 감탄을 쏟아내며 정말로 우리는 하나이기에 행복함을 실감하게 되었다.

한달의 일정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인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30분 밸리채플의 권사님들께서는 감사한 마음을 전

달하고 또한 함께 도우며 서로를 알아갔던 시간들을 아쉬워하는 심정으로 훈훈한 감사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정성껏 준비하신 다과를 나누면서 섬김의 과정속에 느꼈던 점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다짐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결국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했던 최선의 헌신이었다는 결론에 마음을 모으고 밸리채플의 권사님들께서 부애나팍 채플의 수고하신 권사님들께 특별히 준비하신 선물을 드리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감사회는 아름답게 막을 내렸다.

수고하신 권사님들의 손길도, 감사함을 성의껏 표현하신 권사님들의 마음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작은 몸짓이었음을 고백하는 자리였다. | 오희경 기자 |

■ 밸리 제3권사회 신입회원 환영회

MP 채플이 BP 채플로 이동하면서 지리적인 관계로 인하여 밸리채플로 옮겨 오게된 권사님들을 환영하는 제 3권사회 신입권사 환영회가 토요일인 7월 3일 아침 새벽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있었다.

12명의 신입권사가 더해져서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것으로 예상되는 제 3권사회는 배미경 권사님이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며 가장 젊은 권사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권사회이다.

아주 맛난 아침까지 준비해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미각을 만족시키며 시작한 환영회는 임원진 소개에 이어서 기존 회원들과 신입회원들의 자기소개와 인사 그리고 이어진 권사님들만의 특유의 입담과 재치는 아침시간도 예외가 될 수 없을만큼 친근한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 안수집사회 환영모임

밸리채플 안수집사회(회장 이현보 안수집사)가 지난 7월 10일(토요일) 오후 5시, 밸리채플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MP채플에서 올라오신 8분의 안수집사들을 환영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장이신 이현보 집사의 기도로 시작하여, 총무이신 노재덕 집사의 사회로 시종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고 앞으로 밸리안수집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하여 논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가주에서 가장 맛있다는 스테이크를 준비하여 정말로 귀한 육의 양식을 모든 분들이 맛있게 먹으며 저녁 만찬을 함께 하였습니다(식사기도 윤성문집사).

이제 밸리안수집사회는 인원도 40명에 이르고 모두가 일꾼인 관계로 앞으로 더욱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고, 지금은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역은 멈출 수



없기에 주어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밸리안수집사회 한 분 한 분의 집사님들의 건강과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주어진 사역에 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광영 기자 |

■ 음악 산책/ 드보르작 '신세계로부터'

19세기말 미국의 모습 담아내 청중들 큰 감동

2021년 7월 20일,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는 10분 가량의 짧은 우주 관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다.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에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지 52주년이 되는 날에 이뤄진 역사적 이벤트였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암스트롱은 헤드폰을 통해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들으며 달 표면을 유영했다고 한다. 지구의 대기권을 넘어 최초로 우주에 닿은 음악이 바로 드보르작의 음악인 것이다.

안토닌 레오폴드 드보르작 (Antonin Leopold Dvořák, 1841~1904)은 오스트리아 제국 시절 보헤미아(현 체코)의 프라하 근교에서 태어났다. 그는 가업을 잇기 원하는 아버지의 바람을 뒤로 하고, 음악가를 꿈꾸며 16세에 음악원에 입학한다. 졸업 후 어렵게 음악 활동을 이어가던 중, 36세 때 오스트리아 정부가 주최하는 공모전을 통해 자신이 작곡한 곡을 출품하여 수상하게 되고, 그를 눈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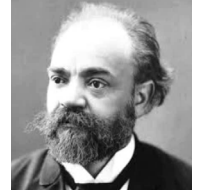
겨 본 브람스의 추천으로 작곡집을 출간하게 된다. 이 작곡집은 날개가 돋친 듯 팔리며 유럽 음악계의 변방인 보헤미아 출신의 무명 작곡가였던 그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가져다주었다.

1892년에는 뉴욕 내셔널음악원의 초대 원장으로 초빙되어 미국으로 건너간다. 당시의 미국은 신대륙으로 한창 발전 중인 나라였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신세계'라고 칭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미국으로 모여들었다. 미국에 머무는 3년 동안 드보르작은 흑인 음악과 아메리카 인디언의 음악을 연구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장하게 된다. 1893년에 이방인으로서는 바라 본 미국에의 인상과, 고향을 그리는 향수를 담아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완성한다. 초연 당시, 다수의 이민자로 구성된 청중들은 떠나 온 고향을 그리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각국에서 연주 요청이 쇄도할 만큼 인기있는 곡으로 자리잡아 드보르작에게 큰 성공을 안겨 주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드보르작은, 악보의 첫 페이지에 '하나님과 함께'라고 쓰며 작곡을 시작하고, 작곡이 끝나면 '하나님께 감사할지언다' 라고 쓰며 곡을 마무리 했다. 그는 소박한 삶을 살며 성공과 실패에 개의치 않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냈다. 그의 성품은 많은 이에게 모범이 되었고, 사망 후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질 만큼 큰 존경을 받았다.

그는 증기기관 열차의 열렬한 팬이었는데, 평생의 가장 큰 취미가 기차를 구경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기차를 사랑했던 위대한 작곡가를 기리며, 현재 오스트리아 빈과 체코의 프라하에는 '안토닌 드보르작 호' 라는 이름의 특별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 황성남 집사(성가대 지휘자) |



■ 나의 취미(이광영 안수집사)/ 모형비행기 조종

창공 드높이 활강 스트레스 '싸악~'

취미활동 중에 모형의 세계는 매우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무선조종 비행기(RC/Radio Control)는 고정익기와 회전익기(헬리콥터)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고정익기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선조종비행기는 글자 그대로 무선조종기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항공기를 조종하는 RC(Radio Control) airplane 인데 누구나 쉽게 배우고 날릴 수 있습니다.

모형비행기의 동력은 (1)나이트로 엔진 (2)electric 모터 (3)터바인 등이 있고, 초보자인 경우는 나이트로 엔진을 이용한 고익기(날개가 몸체 위에 달린)를 주로 이용하여 연습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3개월 정도 열심히 배우면 지도자의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이륙과 착륙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저익기, 제트기등 더욱 빠르고 힘이 좋은 비행기로 취미활동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모형항공기는 날리는 재미도 좋지만 만드는 재미도 또한 쏠쏠합니다. 며칠 또는 한 달씩 걸쳐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면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필자가 처음 무선조종항공기를 접한 50년전 만해도 변변한 기차재나 비행장이 없어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금, 특히 우리가 사는 남가주에는 모형항공기를 날릴 수 있는 비행장이 여러 곳 있어서 취미활동하기에는 아주 좋은 형편입니다. 특히 가까이에 있는 아폴로11 비행장(Van Nuys, Woodley Ave



와 Burbank BL, 만나는 곳)은 미국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좋은 비행장이고 AMA(미국모형항공협회)에 가입만 하면 연중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RC California (남가주 한인 모형항공클럽)은 20여년 전에 결성되었고, 현재 10여명의 회원들이 매달 한 번씩(3째 토요일) 모여 정기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한인 회원에게는 초보자용 연습비행기 무료대여, 강습비 무료이며 연습기부터 터바인 항공기, 무선조종 헬리콥터등 모든 항공기를 단기간에 제대로 배우고 즐겁게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실기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원도 있어서 앞으로 Pilot를 꿈꾸는 우리 2세대에게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무선모형항공기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광영 집사(213-925-0600)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 목장 소개/ BP 채플 5목장

애뜻한 마음, 정이 넘치는 ‘우리는 한가족’

성전 예배가 시작된 날 BP 채플 5목장 김영기, 영희 목자는 오랫동안 만난 목원들을 소스 몰로 초대 했다.

매주 영상으로 만났던 목원들을 직접 만나니 그대로 돌려 보낼 수 없었던 애뜻한 사랑의 표현이었을까? 평소 무뚝뚝하다는 평을 받는 김영기 장로님의 깊은 정이 묻어 나는 삶의 한면이었다.

예배가 끝나면 그냥 헤어질 수 없어서 5목장은 그렇게 만나다가 김영선 권사님이 목원들을 초대하고 나서 한달 이상 목장 모임을 할 수가 없었다.

7월 4일 주안에 놀러와 까지 연기해 두었던 목장 모임을 7월 11일 드디어 가질 수 있었다. 모든 목원들이 소스 몰로 모여 들어 그 동안 못 나눈 인사를 나누며 서로 반가워하며 기뻐하고 있었다.

서로 각자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고 자리를 잡았을 때 목자이신 김영기 장로님이 인사와 그 동안 있었던 목원들의 변화를 안내하고 소개해 주신다.

담임 목사님의 가장 오래된 성도 김영선 권사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대접한다고 인사를 대신해 주신다.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이구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크고 또렷한 음성으로 그 큰 식당을 채우는 감사와 축복이 목원들의 아멘과 함



께 긴 팬데믹을 깨트리는 함성처럼 느껴진다.

주문한 음식들이 하나, 둘 나오고 서로 자기 음식을 나눠주어 맛을 보게 하면서 다양한 식사의 풍성함을 즐기는 목원들의 즐거움이 더해 간다. 먹는 교제가 깊어지면서 서로 맛자랑을 하는 목원들을 둘러 보시는 목자는 식탁이 치워지고 커피나 물로 음료를 취하고 난 뒤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요약해 주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다리는 자인지 조급한 자인지를 말씀을 나눌 때 마다 들어주고, 동의 하기도 하고, 덧붙여 말씀을 풀어 주기도 하는 목자가 꼭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드는 목장 모임은 두시간이 지나도 헤어질 줄 모르고 계속 된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돌진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는 삶이 되니 한사람 한사람 기도로 매일 살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끝을 내신다.

새 성전이 결정되면 예배가 끝난 뒤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나눌 수 있으니 모두 함께 기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며 목원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로 목장 모임을 끝내시는 김영기, 영희 권사님의 사랑이 깊은 목장 모임이었다.

| 이예스터 기자 |



교회 봉어빵 맛있어요~



밸리채플 새벽기도 모임 후 교회인근 스타벅스에 모인 기도국 권사님들... 커피 한 잔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진지하고 아름답다.

이제 주안예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주안예교회가 창립되고 2년째 되던 해 LA Chapel 이 설립될 당시 교회 방침에 따라 3교구 전체가 LA Chapel 로 편성돼 떠났다가 LA 거주하는 교인들이 이번에 다시 Valley Chapel 로 복귀하게 되었다. 6년 만에 돌아와 6월, 7월 2개월 간 섬기며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첫째는 주안예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둘째는 Valley 와 BP를 융합 시키실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떠날 당시는 주안예교회로 통합 창립 된지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몸체가 불어 큰 교회가 되어있었지만 ‘2인 3각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달리는 선수들처럼 어딘가 어색하고 불안정한 면을 볼 수 있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본 Valley Chapel 은 크게 자라서 우뚝 선 큰 나무가 되었다. 큰 나무를 옮겨 심은 후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잘 내리도록 세 개의 말뚝을 박아주듯이 통합한 두 교회 교인들과 그 동안 서로 전입한 교인들의 3개 그룹이 3개의 버팀목이 되어 Valley Chapel 이라는 큰 나무를 잘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 느껴졌다. 6년 전엔 물리적으로 합하여졌지만 지금 보는 Valley Chapel은 화학적으로도 융합되어 ‘하나가 된 Valley Chapel’을 보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Valley Chapel 교우들의 수고에 치하를 보낸다.

둘째, Valley 와 BP를 하나로 융합. 6월 한 달 동안 BP 권사들이 매주 토요일, 주일에 와서 Valley 권사들과 함께 준비한 정성 가득하고 풍성한 점심을 대할 때 감사와 행복함을 느꼈다. 특히 “지금까지는 합동 예배나 야외 행사에 Valley 에 와서 활동할 때에 친교실이나 부역 또는 다른 시설물에 들어갈 때 손님으로 온 것 같고 편차가 많았는데 한 달 간 벨리에 와서 봉사를 하는 동안 친숙해져서 BP 봉사자모두가 이제는 내 집 같고 내 교회란 느낌이 든다”는 김영기 장로의 말을 들을 때 앞으로 두 채플 교인간의 사랑을 상상하며 더 큰 행복감에 젖어본다.

포도 묘목을 심으면 대부분의 품종이 3년경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 4년째부터는 제법 수확량이 많게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8년이 돼야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한다. 이는 뿌리가 바위틈을 타고 내려가 8년쯤 되어서 지하 암반수에 뿌리가 다다라 충분한 물 공급을 받고 영양분을 생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주안예교회는 8년에 걸쳐 하나님의 연단과 축복 가운데 성장해왔다. Valley 는 그동안 내실을 기하고 외적인 시험도 이겨 냈다고 생각된다. 하나님께서는 BP를 8월에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인도하시리라 예상 된다. 8번째 예배처소인 것이다. 이제 충분한 암반수,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뿌리를 내릴 때가 된 것이다.

최혁 담임 목사의 우리의 경각심을 깨우는 말씀 “우리교회는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다. 이제 깨어 기도 할 때다. 여기서 안주 하면 안 된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 같다. 지금 주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활성화함에 마음 든든해진다.

앞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오래 머무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 나형철 기자 |



연단과 넘치는 축복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



오남희 권사 주님의 뜻과 성실하신 섭리와 계획을 통하여 주안예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힘든 순간에도 복된 순간에도 눈동자처럼 돌보시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창립 8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올려드립니다.



김정혜 권사 뒤돌아보니 주안예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주안예교회 성도 한분 한분의 영적 부흥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주안예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미래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깊이 있고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는 물도 없고, 길도 소망도 없는 답답한 광야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와 같이 깊이있는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 살길이 열렸습니다. 광야는 저희를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라 하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생에서 가장 복된 만남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는 인생을 여러번 포기하려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깊은 생수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주심에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익숙하지 않은 저희들은 더 열심이 배워갈 것이며, 함께 나누며 걸어갈 원합니다. 오늘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순 권사 지난 8년의 시간이 우리를 더욱 하나되게 하신 훈련의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한 폐렴으로 인한 팬데믹을 지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계속 이어진 말씀 훈련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류명수 집사 주안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것이 무엇인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운대로 함께하게 된 교회 식구들과 즐겁게 서로 섬기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문수경 권사 어느덧 주안예교회가 8주년이 되었네요. 8년전 저의 모습 모습을 잠시나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간절함과 갈망함으로 말씀을 쫓아 이곳 주안예교회에 왔는데... 8년이 지난 지금의 저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를 저 자신에게 잠시나마 물어 봅니다. "하나님! 주안예교회와 저희 가정과 8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박성원 권사 엘 엘론의 하나님을 만나다. 어느덧 주안예교회가 8주년을 맞고 저희도 함께 지내온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을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세상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엘 엘론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기다릴 줄 안다 라는 말씀과 성가대원 중창팀원들의 사랑과 격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저희 가정은 하루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안예교회 일원으로 부족하지만 감사하며 찬양하길 기도합니다.



■ 기행문/ Redwood 국립공원을 다녀와서

세포를 되살리는 피톤치드의 향연

미국에서 꼭 가봐야 할 10대 국립공원 중 하나, 또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레드우드 나무들의 서식지... 제목만 들어도 마음을 설레이게 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항공편으로도, 차량으로도 선뜻 나서기가 애매한 거리에 있던 이유로 늘 나중을 기약하며 여행지의 후보에서 선택되지 못했던 곳이기도 했다. 기나긴 팬데믹을 겪으며 1년 이상을 갇혀 지내다 보니, 지금이 그렇게 미루어왔던 나중이 아닐까 라는 생각과 함께 장거리여행에 대한 갈증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외면 할 수가 없었다.

드디어 7월의 무더위속에서 우리는 안내하시는 집사님을 따라서 차량을 이용한 출발을 하고야 말았다. 12시간을 내리 달려야 하는 거리이기에 새벽에 나서야 했지만, 일찍 나선 덕분에 해지기 전에 “Avenue Of Giant” 라는 곳에 도착해서 끝이 보이지 않을만큼 곧게 뻗은 레드우드 숲길을 마음껏 드라이브하며 달려볼 수 있었고, 레드우드로 둘러싸인 Picnic Area 에서 캠핑식 저녁 식사로 바베크와 콩치 김치찌개를 즐기기도 했다. 준비하신 정성과 숨씨때문에 음식맛도 일품이었지만, 레드우드에서 품어내는 천연물질인 피톤치드는 약해져있던 몸속의 세포들이 되 살아 나

는듯한 싱그러움을 안겨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Alkata 라는 작은 마을에서 1박을 하고 이튿날 Crescent 시로 옮겨가서 하이라이트인 하이킹을 시작했는데 “Fren falls and Boy Scout trail” 은 왕복 약 5 마일의 산속길을 폭포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코스인데 그리 험하지는 않았지만 레드우드 나무의 뿌리를 밟고 다녀야해서 발바닥이 약간 불편함을 감수해야했다.

셋째날은 Eureka 시로 이동해서 “Sequoia Park Zoo” 를 구경했는데 동네 가운데에 자리한 야담하면서도 식물과 동물을 함께 만나볼수있는 재미난 공간이었다, 특별히 불과 몇일전에 처음으로 오픈한 “Redwood Sky Walk” 는 100미터가 넘는 레드우드 나무의 종속에 지상 100피트에서 250 피트 높이의 다리로 연결해 놓았는데 출렁거리는 다리위를 지날때는 마치 구름위를 떠가는듯한 신비로움에 자꾸만 걷고 싶었다.

이어서 “Founder’s Grove and The Dyerville Giant” 로 이동을 하는 중에 안개가 자욱한 산 중턱 도로에서 보수공사를 기다리는동안 길거리에서 끓여먹었던 우동의 맛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맛이 되어버렸다. “Dyerville Giant”

는 1991년 태풍이 불어서 362 피트의 나무를 비롯해서 여러그루의 나무들이 쓰러져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숲이다, 비록 죽은 나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이 다른 생명이 있는 나무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우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 광경 또한 어디에서도 볼수없는 장관이었다, 끝에서 끝까지 한참을 걸어야 도착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인 1번 도로, 올아메리칸 로드를 달리면서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경치에 넋을 잃고 말았다. 바다와 산과 바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해안가! 그곳에 나도 스며들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Mcway Falls 도 Ragged Point 에서의 여유로운 휴식도 바다코끼리의 서식지도 ... 1번 도로에서의 추억거리로 오래오래 기억될 장소 들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해주신 집사님과 유쾌한 동행을 위해서 애쓰신 일행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시기에도 모 든상황을 허락하시고, 위대한 자연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 오희경 기자 |